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맞춤형 컨설팅 효과 톡톡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재단 2층 경일이방에서 ‘2025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 성과공유회서 사례 발표

현장 진단 기반 매출·서비스 등 경영 개선 뚜렷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재단 2층 경일이방에서 ‘2025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추진된 주치의센터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올해 진행한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상 1명(정대균 컨설턴트), 우수상 2명(최상흠 컨설턴트·김상균 컨설턴트)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효율 개선, 매출 회복, 브랜딩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 이어 세 명의 수상 컨설턴트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는 △현장 진단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과정 △서비스·운영 개선 전략 △매출 및 고객지표 개선 성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치의센터는 올해 참여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성과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현장 경영 주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재단은 내년부터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현장 중심 진단 강화, 업종별 맞춤형 지원 확대, 컨설턴트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계속 기울인다.

신현구 대표이사는 “올해 주치의센터 컨설팅은 현장 중심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영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점검

봉황농협DSC 방문…매입 절차·등급 판정 과정 등 살펴

농협 전남본부는 2025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배 수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21일 봉황농협DSC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송정훈 봉황농협 조합장, 제해중 농협 나주시지부장,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입 절차와 등급 판정 과정을 살펴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2025년산 쌀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배매 면적 역시 2.9% 줄어든 67만

8000ha 수준으로 예측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는 전국 45만t이며, 봉황농협은 DSC 시설을 활용해 수매 벼의 건조와 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쌀 가격은 기후, 정부 정책, 수급 불확실성 등에 민감하므로 DSC와 RPC의 경영 상황과 전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는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신경현 기아 서광주지점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역대 36번째

기아는 서광주지점 신경현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기아는 영업 현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 판매량별로 오토컨설턴트에게 ‘스타’(2000대), ‘마스터’(3000대), ‘그랜드 마스터’(4000대), ‘그레이트 마스터’(5000대) 등 칭호를 부여한다.

1999년 기아에 입사한 신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연평균 148대, 누계 4000대를 판매해 역대 36번째 그랜드 마스터의 영예를 안았다. 기아는 상패와 포상 차량을 수여했다.



신씨는 “처음 영업 현장에 발을 딛고 나서 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저를 믿고 찾아주신 많은 고객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새로운 걸음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농주농협은 지난 21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에서 고품질 쌀 ‘농성미’ 신규 출시 시식회를 개최했다. ‘농성미’는 밥을 지으면 윤기가 흐르고 고슬고슬하면서도 찰기가 뛰어나 잡내가 적고 은은한 단맛과 촉촉한 식감을 자랑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농주농협, 고품질 브랜드쌀 ‘농성미’ 출시

4ha 계약 재배·엄격한 재배 기준 적용

농주농협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농가와 4ha 규모의 계약재배 포장에서 엄격한 재배 기준을 적용해 생산한 고품질 쌀 ‘농성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성미’는 ‘진상2호’ 품종으로, 출수기가 8월 25일인 만생종이다. 아미

로스 함량이 12.2% 수준의 중간찰벼 특성을 지녀 밥을 지으면 윤기가 흐르고 고슬고슬하면서도 찰기가 뛰어나다.

잡내가 적고 은은한 단맛과 촉촉한 식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출시된 ‘농성미’는 농주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춘양·한천 지점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품질 쌀임에도 4kg 기준 1만700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노종진 조합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고품질 쌀 브랜드화를 목표로 혁신적인 생산·유통에 전념하겠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쌀 소비 촉진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임원 선출 외부기관 검증 재취업 제한·부정청탁 ‘무관용’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에 나선다.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임원 선출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후보자 추천과 심사 단계에서는 경력·전문성·공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과 필수 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퇴직자의 재취업 관행도 개선한다. 고위직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한 인사청탁 근절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공식 인사상담 절차와 외부 인사나 타 법인 임직원을 통한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적용한다. 반복적·상습적 청탁은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며,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이 연계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임직원 대상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대응방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조직 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5 밝은사회 광주클럽 연말 나눔 그림 전시

함께 하는 빛,
함께 하는 꿈

2025. 11. 17.월 - 11. 27.목

광주광역시청 로비

전시내용

- 우리 지역의 예술인, 장애인예술인, 어린이와 함께 참여
- 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장

지향점

- 예술접근성 증진·지역작가 지원·사회적 연대를 지향
- 예술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실천하여 이웃청소년에게 따뜻한 감동 및 동력구현

참여작가

- 기옥란 작가·박유자 작가
- 틈새아트 아르브뤼 아티스트 김리사진 작가·박정심 작가·김진홍 작가·나정숙 작가·윤미애 작가·김춘옥 작가·서은주 작가·이은아 작가·김혜영 작가·오연화 작가·조유경 작가
- 편애키즈 유치원 어린이들

주최·주관 밝은사회광주클럽 한국본부 광주클럽

협력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 소화누리 편애키즈유치원

후원 광남일보 광주경제지중총회 광주지방세무사회 대광건설 드림투데이 장영역 동서대 한국IT산업뉴스 MOZMO 세무법인 다솔누리 NH 에너지터미널·조리

